

05월호

Contents

자립생활 기술실천 영화관람 ‘특별시멘트’	2
강북센터 4차 자조모임(보치아)	4
도담도담 김치 담그기	6
동로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8
“제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시작을 알립니다.	10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2
조선일보 청년기자단에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협조	14
(칼럼1) 기혼장애여성의 삶	16
(칼럼2) 사회복지에 대하여.....	18
장애인에터넷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특별시민’

문지수



4월 28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프로그램은 ‘특별시민’을 관람하게 되었다. 매번 수유 메가박스에서 보았으나 이번 영화관람 프로그램은 수유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하게 되었다.

자립생활기술실천 사업의 담장자인 나는 인턴이신 김성윤 선생님과 함께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우리는 집합시간보다 좀 더 일찍 영화관에 도착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자들이 한두 분씩 오시기 시작하여 이번 영화관람 프로그램에서는 지각생이 한 분도 없었다. 그렇게 지각생 없는 참여자들을 모시고 영화관람 전 단체사진을 찍고 우리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영화 ‘특별시민’의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 하지만 실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에 정치인이다.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 (곽도원)를 파트너로 삼고, 겁 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 (심은경)까지 새롭게 영입한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헌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치열한 공세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까지 일어나며 변종구의 3선을 향한 선거전에 위기가 거듭되는 내용이다.

이날 영화 관람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인 5월 9일 선거 날을 앞두고 이 영화를 관람하여서인지는 몰라도 내용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었다고

말씀하셨다.

나와 김성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자분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었다.



영화자료출처 -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6485>

강북센터 4차 자조모임[보치아]

주영경

2017년 5월 13일(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차 자조모임[보치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4차 진행 시 대부분 동일한 참여자분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자조모임은 회장님의 주도하에 1~3차 때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참여자들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부쩍 더워진 날씨 탓에 강당 에어컨을 가동하며 보치아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마쳤다.

자조모임 10시 ~ 11시까지는 표적구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공 던지기 연습을 하고, 11시 ~12시는 스텝이 심판을 보며 보치아 개인/단체전을 진행했다.

5월 31일(수) 2017년 동대문구지원 “제6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치아 대항전”에 출전하게 된 김옥영, 서태원님은 휴게시간을 활용해 회장님과 소통하며 연습하곤 했다.

이렇게 한 달에 1회 자조모임 프로그램 2시간이 지나가고 강당을 재빠르게 정리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지하1층 식당으로 달려갔다.

식당에 모인 참여자들이 각자 편한 곳에 자리 잡아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스텝들이 도시락을 배분하였다.





“와~ 어떻게 매번 밥이 이렇게 맛있죠???”

“다음 달 도시락 메뉴는 뭐가요???”

“이게 정말 4,000원 짜리 도시락이야???”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며, 맛있게 도시락 드시는 모습을 보니 진행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5월 13일(토) 제 4차 보치아 진행하기 전날, 상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보치아 참석률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기존 보치아 참여자분들이 전원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보치아 대항전 개인전에 참여하시는 김옥영, 서태원님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 (상금획득 시 보치아 멤버에게 점심 쏘기~~~!!!^____^)



도담도담 김치 담그기

이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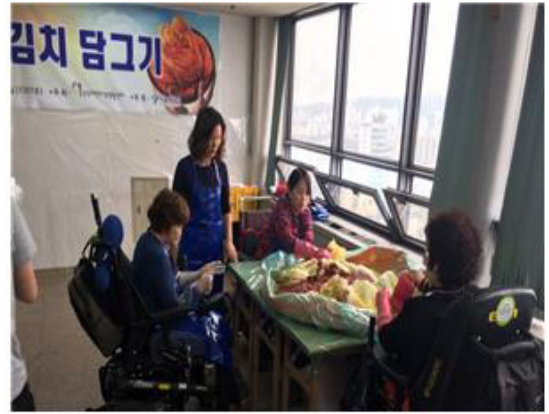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를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 프로그램실과 교육실인 1707호에서 진행한 상반기 김치 담그기 행사는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은 강북센터 체험자와 회원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홍보가 시작 되자마자 문의전화의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북센터 스태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참여자분들이 원활히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김장 매트와 비닐포장지, 고무장갑, 앞치마,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미리 세팅하였고, 배추 물 빼기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참여자분들이 원활히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셨고, 강북센터 스태프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가 아닌 참여자들을 위해 활동보조인분들이 김치를 버무리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를 통해 휠체어 참여자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참여자분들에 많은 호응을 얻었고, 저희 강북센터 스태프들도 편안하게 체험하시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렸습니다.

활동보조인 박지훈 선생님과 문지수 사회복지사님이 다 버무린 김치를 상자에 넣는 포장작업을 담당하시어 참여자분들이 가지고 가시기에 불편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비록 3kg라는 작은 박스였지만, 참여자분들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웃음 짓는 얼굴로 귀가하시는 모습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껴 저희 강북센터의 이용자와 회원 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11월에 진행 될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 도담도담' 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전난희



하여 기초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다.

심화과정의 첫날은 기초과정 복습과 이론 강의여서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첫날의 강의 진행방식이 기초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참여자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듯 보였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하였다. 강북센터 스텝들은 심화과정 강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하여 참여자들을 기다리며 강의실 세팅을 마쳤다.

참여자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방석과 의자를 미리 배치



이번 심화과정은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로 이루어졌다. 실전에 바로 투입되어 동료상담을 진행하여도 좋을 강의 진행 방식은 새로운 참여자들에게는 어색함을 주었지만, 실습 강의였던 '동료상담의 실제'는 1대1 실습으로 진행되어서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또한 동료상담 내용을 예시로 들어 참여자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강의 역시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

을 받았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참여자들이 대부분 동일하여 친밀도와 유대관계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었고, '억압'이라는 단어 하나의 참여자들은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얘기하며 묵묵히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강북센터만의 강의내용을 유지하여 타 센터와 차별을 두며, 8월에 있을 보수교육에 대상은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동료상담가의 역량강화를 주목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시작을 알립니다.

허효숙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7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제1기를 시작으로 장애인권, 자립생활, 소통,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장애관련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권리 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에 올해도 변함없이 2017년 5월 26일,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첫 강의를 시작되었습니다. 15시부터 18시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송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손연숙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1강 수업을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전



달 교류를 의미하며,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고받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

2. 경청이란(듣는다는 것은)

- ① 귀로 듣는 것 - 단순한 물리적인 듣기, 할 일을 하면서 귀로만 듣는 것
- ② 몸(태도)으로 듣는 것 -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상대방의 말에 대해 몸으로 반응하는 듣기
- ③ 입으로 듣는 것

-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고 말로 확인해주는 듣기
- 의사소통에서 제대로 듣는 것

3. 잘 듣기의 5단계

[의미 분석 → 의도 분석 → 기분 분석 → 사람 분석 → 숨은 의도 분석]

: 잘 듣기 위해서는 이 5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결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꿀 때, 나를 융통성 있게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어, 개인의 삶에서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프로그램은 5월 26일(금) 제1강을 시작으로 7월 26일(금) 제8강 수업으로 마무리됩니다.

돌아오는 6월 2일(금) 제2강 수업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국 DPI 김대성 회장님이 진행 예정입니다.

모든 강의를 장애인 당사자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 난희



2017년 5월 22일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태평 홀에서 진행된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저와 같이 주영경 주임님 허효숙 사회복지사님이 참여하였다.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평가 등 환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였다.

제1교시는 '쉽게 따라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기획 및 평가'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가 강사로 소개되었고, 제2교시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 현장 실무'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정홍채 부장님이 강사로 소개되었다. 제3교시는 '2017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보조금집행기준' 강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이셨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님의 강의는 서류작성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IL센터에서 실행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박사가 강사로 소개되었고, 제2교시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 현장 실무'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정홍채 부장님의 강의는 예산 및

회계 파트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회계 처리 등의 내용이였다.

IL센터 센터장 및 지원사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IL센터와 100%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번 IL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미흡사례 및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컨설팅트가 시행되어 보다 유익한 교육이라 생각된다.



조선일보 청년기자단에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협조

허효숙



2017년 4월 25일 오후 3시 30분, 조선일보사 청년기자단 김*태 기자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뉴스, 즉 공익 분야의 뉴스를 다루기 위함이었다.

청년 기자는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의 문제점을 주제로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 시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점들을 알려 달라 부탁했다. 좋은 취지라는 생각에 방문을 환영하였고, 서로 인사 후 본격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1시간 동안 열변? 을 토했다. 평소 장애인용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과 낮은 시민의식으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열심히 종이에 받아 적으며 경청했다.

다음은 기자에게 알려준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의 문제점들이다.

▶ 화장실 내부공간의 협소

내부공간이 비좁아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포함)가 들어가 회전하기 힘이 듭



좌변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전장(全長)에 비해 좌변기 이용 공간이 작아 회전 등의 이동 에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즉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인 셈이다.

▶ 화장실 안 비품 도구 보관으로 인한 불편함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청소 도구와 각종 잡동사니로 바닥이 어지럽혀져 있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용무를 볼 수 없다.

▶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성의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 화장실 내 변기와 세면대 사용 시 어려운 점 많은 화장실이 잘못된 구조와 배치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휠체어사용자의 측면접근이 이뤄지려면 대변기 한쪽은 반드시 0.75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대변기 옆이나 앞에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세면대 손잡이를 설치해 대변기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화장실 안전 바 관리소홀

아직도 많은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리소홀로 나사가 풀려 있는 경우가 있다.

▶ 손 세정제와 핸드드라이어 문제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 안 해도 되는 자동 센서가 필요하다. 손 세정제는 액체나 거품형이 아닌 고체용 비누가 비치되어 있어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

▶ 화장실 자동문 문제점

고장 난 자동문이 많으며 자동문 버튼, 즉 장애인이 열림과 닫힘 버튼 누르기에 힘든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음

▶ 시민의식 저하로 인한 문제점

노숙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선진 화장실 문화를 외국에서 벤치마킹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선진 문화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선진 화장실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출처:

<http://topstargirl.tistory.com/5> [신효정의 '세상과 통' (<http://topstargirl.com>)]

기혼여성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

전 난희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혼 후,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삶의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외와 차별로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가중된 부담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여성에 비해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신들이 성적(性的)으로 부적절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지한다.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체

험들은 남성 장애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남성 장애인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여성장애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이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시각 중심의 연구들이 보다 풍성하게 시행될 필요하다.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지위도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음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어머니 됨'의 경험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 당사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성지체장애인들은 여성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보지 못한 회한(悔恨)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 배우자가 아닌 한 여성으로써의 소소한 삶도 같았지만 장애라는 굴레 속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통해 여성지체장애인들이 일찍부터 가정 및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며 '주인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관계맺음'을 통해 자아를 찾게 됨을 알 수 있었고, 즉 성지체장애인들의 '관계맺음'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사회와 통합 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지체 장애인들의 장애수용을 돕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결혼과 함께 배우자와 모성 역할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수용이 선행되어야만 가족 내에서의 다른 역할들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지체장애 여성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기도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강요당하고 있었다. 장애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변인들에 의해 미리 판단되어졌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세뇌 당했음을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은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지체 장애인들은 성(性), 결혼 및 출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어 더욱 더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감에 따라 자신의 능력 및 욕구에 대해 고심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의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지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장애를 수용하도록 돕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 당사자 중심의 논의가 아닌 장애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지체장애인들의 한다면, 건강한 대인관계는 장애라는 자기 낙인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상과 소통됨에 따라 편견에 의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장애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여성지체 장애인의 경우 자칫 가정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및 여가 활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보다 확충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여성지체 장애인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의 경험은 자신의 여성성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지만 자녀양육 과정에서 오는 중압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갖기도 했다. 이는 자녀양육과 가사의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만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장애여성들이 모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편견으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출산 및 자녀양육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경제적 보조와 가사 도우미 제도들을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양육기술은 여성지체장애인이 자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이 장애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모성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자녀양육 방법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비장애 여성과 차별화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대상의 부모교육,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이라는 획일적 시각이 아닌 여성장애인 고유의 시각에서 그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결혼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

여성장애에 정의와 원인 및 종류와 해결방안 조사분석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미지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326122&memberNo=24508378&vType=VERTICAL>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하여

김성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적(social)과 복지(welfare)라는 두 개의 명사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개인의 행복 뿐 만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 어원의 개념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는 인본주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실천적인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전체의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활 향상과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여 이상적인 상태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관점과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의 그 기능에 따라서 보충적 관점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로 구분됩니다.

보충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의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가족 또는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충적 개념은 사회의 기본적이고 정상적 제도인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보충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란 가족, 종교, 경제와 같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공통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날의 사회복지 보호나 구제보다는 사회의 정상화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대상자 또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blog.naver.com/bonus77/100133066943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tmaxa3/220428069165>

<http://blog.naver.com/jo39jo/220629988007>

<http://blog.naver.com/osj6224/30187352195>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에티켓] 심장장애란?



심장장애란? 심장은 사람 및 동물의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심장의 좌·우면은 폐면이라고 한다.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장장애를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基質的)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心筋硬塞) · 심근변성 · 심장판막증 · 고혈압증 · 심낭염(심막염)에 의한 것이다.

심장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심장장애의 판정 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7&dis_t=1#tab_menu

<http://cafe.naver.com/leeheartwell/1635>

이미지 출처-

<http://www.clipartkorea.co.kr>

꿈이 이루어진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다.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이달의 정보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준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려수급자와 화귀년차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중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경우, 의사의 진단처상에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나 신분증 또는 신분조표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2017년도	661,172원	1,125,780원	1,456,366원	1,786,952원	2,117,538원	2,448,124원	중위소득 40%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는 661,172원, 2인 가구는 1,125,780원, 3인 가구는 1,456,366원, 4인 가구는 1,786,952원, 5인 가구는 2,117,538원, 6인 가구는 2,448,124원, 7인 가구는 2,778,710원, 8인 가구는 3,109,296원으로, 이후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330,568원씩 기준금액이 증가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방법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자산 등의 통합 조사하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종 또는 2종 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의료급여 지원금액

이용 구분		1차 의원	2차 의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	-	-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입원	10%	10%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3조 및 제12조의8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시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고, 입원시 전액 무관하며,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시 1차 의료가만은 1,000원, 2차와 3차는 진료비의 15%, 입원 시에는 의뢰비의 10%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500원이다. 참고로 타법의 의해 이차비과 국유공자, 의사 및 의사의 유족, 만8세 미만의 입양아동, 중요형문화재의 보유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과 노숙인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한울타리 배움터’ 제3강 참석안내

2017년 6월 9일,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제3강 <탈 시설과 인권> 강의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사업명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일시	2017년 6월 9일(금) 오후 3시 ~ 6시
장소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
강의주제	3강 - 탈 시설과 인권
강사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준비물	장애인인 경우 복지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및 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가비	무료
기타 문의	강북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팩스: 0303) 0799-1758
접수 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로 접수 또는 팩스 접수

※ 상기일정과 강사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강 ‘탈 시설과 인권’ 강의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